

■ 노무현 최고위원의 대구후원회 연설 요지

1. 분열로 인해 한국정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국민의 비난과 질시를 받고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구도 하에서는 그 어떤 지도자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모두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지도자들이었지만 지역주의로 인해 절반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었으며 지도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분열은 한국사회를 철저히 왜곡시켜왔으며 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한국사회의 시대적, 역사적 요구는 분열을 극복하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나는 그동안 국민통합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시대의 요구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2. 차기 후보에 관한 민주당의 선택은 누가 이회창씨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즉 본선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두 곳 모두에서 많은 득표력이 있으며 민주당의 선택은 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영남지역에서 이회창씨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분열주의에 입각하여 대선구도를 짜려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호남충청단결을 통한 영남포위전략을 구상이 그것이다. 이는 승리할 수도 없는 전략일뿐 아니라 분열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려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에서 내가 이회창총재와 맞붙으면, 97년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간에 형성되었던 대립구도와는 전혀 다른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것은 통합과 분열의 대결, 70세의 특권층후보와 50대의 보통시민후보간의 대결의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정치권의 대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나는 후보가 되면 정책과 노선에 따른 대대적인 정개개편을 주장할 것이다.

3.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동서를 하나로 만드는 국론통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보통사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낮은곳으로 임하는 겸손한 대통령, 갈등의 현장에 직접찾아가 중재와 조정애 나서는 대통령,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친근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강한 한국을 만들 것이다. 2008